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산물 생산자-구매사 교류·상담회 참석

- 산지 생산자와 구매사(식품업체 등) 간 신규판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일부 대형마트 점포 폐업, 양파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 조직 참여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18일(목)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농산물 생산자-구매사 교류·상담회’에 참석해 산지 생산자, 식품·유통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14:00~17:30 / 장소 : 서울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역량을 갖춘 주요 산지별·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산지에서 직구매를 희망하는 대형 구매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판로 발굴을 위해 교류·상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산지 생산자들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여 판로를 다양화할 수 있고, 구매사들은 산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출하자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어 양측에 모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상담회에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감귤),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배, 메론),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딸기, 수박), 만인산농업협동조합(쌈채),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주)(파프리카) 등 주요 산지별 생산자 37개소와 CJ프레시웨이, 오아시스, 롯데쇼핑(주)롯데마트, 풀무원 등 식자재 및 식품·유통 업체 28개소가 참석하여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형마트의 점포 폐업으로 판로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생산자*와 최근 가격이 낮은 양파를 취급하는 산지 생산자**들을 참여시켜 농가의 대체 판로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왔다.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감귤), 밀양시조합공동사업법인(꽃고추), 문경시조합공동사업법인(사과), 영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사과), 농업회사법인 (주)일광(양파)

**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전남 무안),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제주), 농업회사법인 (주)일광(경북 칠곡),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전북 익산)

또한, 십일번가(주), 지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구매사로 참여하여, 역량을 갖춘 생산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규 입점하는 등 농산물의 소비자 직배송 경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김종구 차관은 “이번 상담회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역량을 갖춘 주요 산지 생산자와 다양한 수요를 가진 식품·유통 업계를 연결하는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앞으로도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211)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 민	(044-201-2215)